



축산업등록제

양계업 85.7%, 부화·종축·계란집하장 100% 등록 완료

농림부에 의하면 지난 13일 현재 등록대상 농가 4만3029호 농가의 88.8%인 3만8195호가 등록을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축종별로는 부화업(192농가), 종축업(445농가), 계란집하장(28농가)이 100% 등록을 마쳤고 한육우(1만8467농가)는 95.7%인 1만7678농가, 낙농(8351농가) 82.5%인 6888농가, 양돈(9082농가) 82.1%인 7458농가, 양계(5896농가)의 85.7%인 5054농가, 오리(568농가)의 79.4%인 452농가가 각각 등록을 마친 것으로 조사됐다.

농림부 축산정책과 관계자에 이와 같은 성과는 농림부의 홍보와 미등록농가에 대한 자금지원 제외 등 불이익 초래, 농가의 의식 변화로 오는 12월 26일까지 등록대상의 모든 농

가가 등록을 마칠 수 있을 수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마사회법

특별적립금에 농축산물소비촉진사업 추가 입법 예고

농림부는 마사회 특별적립금 사용 용도에 농축산물소비촉진사업을 추가하는 등을 골자로 한 마사회법시행령개정령(안) 일부를 입법 예고하였다.

지난 9일자로 예고된 마사회법시행령개정안에 따르면 마사회 손익금중 특별적립금의 사용 용도에 “마사진흥, 농어업인후계인력 장학사업,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증진사업 및 농축산물소비촉진사업”을 추가하고 있다.

서울대, 수의과대학 질병진단센터 운영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학장 양일석)은 질병진단센터(센터장 박봉균 교수)를 설립하였다.

동 대학은 역할로서 최근 가축전염병 등으로 인해 양축가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질병 진단을 해 주기 위해 수의과대학 내에 질병진단센터를 운영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질병연구센터는 소, 돼지, 닭 같은 각종 산업동물과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신속 정확한 진단 및 예방, 방제대책과 실험실 분석자료를 양축가와 축주, 개업수의사 및 수의학분야 종사자에 제공하게 된다.

분뇨 해결을 위한 자연순환농업팀(T/F팀) 운영

농림부는 차관보 직속의 자연순환농업팀(T/F팀)을 두고, 지난 7일 현판식을 가졌다. T/F팀은 앞으로 수요자인 경종농가의 요구 충족을 위한 가축분뇨 퇴·액비의 품질 및 안전성 관리, 유통체계 개선, 교육·홍보 대책과 함께 이를 집행하기 위한 법·제도 정비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농협중앙회

산학연농 양계컨설팅 활성화 방안 워크숍 개최

농협중앙회는 지난 29일 '양계산업 동향 및 효과적인 컨설팅 추진방향'이란 주제로 300여 명의 양계인 및 관련인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산·학·연·농 양계컨설팅 활성화 방안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농협은 양계 컨설팅 시스템을 체계화 하고 이를 기반으로 양축가들에게 실익을 증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컨설팅을 개최하였다.

워크숍 제1부에서는 '국내외 양계컨설팅 사례 및 활성화 방안'이란 주제로 서울대 최홍림 교수가 해외 양계컨설팅 사례를 농협 김삼수 박사가 국내 컨설팅 산업 동향에 대해 발표하였으며, 제2부는 '산·학·연·농 연계 컨설팅 활성화 방안'이란 주제로 충남대 박종수 교수가 좌장을 맡아 토론회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토론 자료는 농림부 축산경영과 조병임 사무관, 충북대 모인필 교수, 검역원 김재홍 부장, 축산연구소 김상호 박사, 한경대 장경만 교수, 상주축협 조광래 조합원, 한국양계조합 조규진 상임이사

가 참여하여 양계컨설팅의 중요성과 향후 발전 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토론이 이어졌다. 이 심포지움을 준비한 농협중앙회 김삼수 박사는 닭 사육규모가 대형화 및 대규모화 되어 있어 농가 혼자의 힘과 기술로는 관리가 불가능하며, 이제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농장경영이 이루어져야 할 때 이지만 농장현장은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 이라고 언급하고 이번 워크숍을 계기로 양계업이 발전되기를 희망하였다.

농협중앙회

충남 천안지역 양계농가와 사랑방좌담회 개최



농협중앙회 축산지원부(부장 이정현)는 지난 8월 29일 충남 천안시 소재 대전충남양계조합에서 동회 축산지원부 양돈양계사업단장 이병국, 대전충남양계축협장 현광래, 양계농가 조합원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양계사업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사랑방좌담회를 가졌다.

좌담회에 참석한 농가는 충남지역 내에서 육계 및 산란계를 직접 사육하는 양계농가들로 이들은 최근의 양계산업 동향과 축산정보 등에 대하여 많은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었으며 충남지역 양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앞으로도 좌담회를 주기적 행사로 정착시켜 주기를 부탁하였다

이에 이병국 농협 양돈양계사업단장은 『사랑방좌담회』를 개최하는 취지는 축산현장의 애로 및 요구사항 등을 파악하여 축종별 사업계획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축산관련 정보교환을 통하여 양축농가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으로 앞으로도 농가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오늘 좌담회에서 나온 양계농가의 애로사항 해결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협은『새 농촌 새 농협 운동』을 통해 농촌·농업의 활력화를 도모코자 “사랑방좌담회”를 평택과 목포지역에서 이미 개최하였고 이후에도 양계관련조합을 대상으로 전국 각지에서 개최할 계획이다.

축산연구소

친환경 유기축산 확대방안 심포지엄

축산연구소(소장 윤상기)와 한국유기축산연구회(회장 강창원 건국대학 교수)는 지난 6일 수원 축산연구소에서 한국유기축산연구회 창립기념 “친환경 유기축산 확대방안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윤상기 축산연구소장이 개회사를, 손정수 농촌진흥청장과 강창원 한국유기축산연구회장이 환영사로 답변하였고, 윤봉중 축산신문 회장과 강춘성 회장이 축사를 하였다.

이날 심포지엄은 세계 친환경 유기농업 현황과 한국의 선택, 친환경 유기축산 정책방향, 유기축산물 품질인증 기준 및 인증사례, 국내 유기축산 연구현황 및 방향, 유기축산 시범사업 추진 현황 및 방향, 유기사료 수요 및 공급 방안, 유기축산물의 생산과 유통에 관하여 발표하였다.

(사)한국계육협회

육계생산성 향상을 위한 세미나 개최

(사)한국계육협회(회장 한형석)는 지난 23일 대전 유성 흥인관광호텔에서 동회 통합경영회원사 계약사육농가 및 일반육계농가를 300여명을 대상으로 육계생산성 향상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세미나에 강사로는 조현성 하림사육부장(육계생산성 향상), 정용운 인터베트코리아 수의사(레오바이러스, IB), 신인수 미국대두협회 박사(탈피대두박의 사료적가치), 정남교 농협중앙회 농업금융부 팀장(농업정책자금 안내), 조병임 농림부 축산경영과 사무관(육계자조활동자금 추진)가 나섰다.

축산물등급판정소

2005축산박람회에서 축산물등급제 홍보

축산물등급판정소(소장 김경남)는 지난 8월31일부터 9월2일까지 대전무역전시관에서 개최된 2005한국국제축산박람회에 참가하여 축산물등급판정 홍보관을 설치·운영하고 참관객 및 관계자를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하였다.

동소가 이번에 선보인 「땃대! 퀴즈풀고 경품받자」 이벤트 행사는 소비자들에게 우리 축산물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증대에 기여할 목적으로 새롭게 개발한 행사로 축산물 관련 상식·정보 등의 퀴즈를 내고, 문제의 난이도에 따라 쇠고기와 육가공품, 계란등의 경품을 제공함으로써 참관객으로부터 호평을 얻었다고 밝혔다.